

# “나도 창업가가 될 수 있을까?”

## 지스트, 청소년 대상 창업체험 교육 운영

- 「2022 지역 창업체험센터」교육 스타트... 장덕中 등 지역 7개 중고교 참여
- 창업 및 아이디어 확장 실습하며 창업문화 체험, 기업가정신 키워



▲ 올해 첫 수업을 시작한 광주 장덕중학교 학생들이 창업을 주제로 한 퀴즈를 풀고 있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가 지역에서의 창업문화 확산과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광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2 지역창업체험센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0년 지스트와 광주교육연구정보원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시작해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이번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진로 설정과 기업가정신 함양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업 관련 실습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광산구 장덕중학교(4월 11일)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평동중 △충장중 △각화중학교 △경신중 △광주진흥고 △문성중 등 총 7개 학교에서 26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수업에서 가벼운 퀴즈를 통해 성공 및 실패한 기업, 아이디어 사업화, 기술 사업화 등에 대해 학습하고, 일본에서 유래한 사고기법인 만다라트(연꽃기법)\*로 아이디어를 확장한 뒤 서로의 아이디어를 융합·결합하며 구체화시키는 연습을 하게 된다.

\* 만다라트: 일본의 디자이너 이마이즈미 히로아키가 1987년 개발한 발상기법. 활짝 핀 연꽃 모양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발상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사고 기법이다.

이어서 도출한 아이디어를 '3분 스피치'를 통해 다른 팀들과 공유하며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판매할 수 있을지, 물품 유통과 홍보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등 창업가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고민을 체험하게 된다.

지난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이러한 실습교육과 눈높이에 맞춘 기업가정신교육에 대해 학생들의 만족도와 성취감이 높게 나타났다.

지스트 창업진흥센터 조병관 센터장은 "더 많은 청소년들이 지역창업체험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도전정신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지스트는 창업 역량 및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의적인 진로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